

한국 디자인 진흥을 위한 서막: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

1970

디자인진흥원사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
(초대 이사장 이낙선)
- 디자이너 등록요령 고시
(상공부 고시 제5403호)
1차 디자이너 등록 233명
- 부산지사 개소
- 『스위스 포스터전』 개최
- 『디자인·포장』 창간

한국 디자인사

- 《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 협회전》개최
- 계간 『디자인』 폐간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총권 4호)
- 통상진흥국 디자인·포장과 설치
- 트랜지스터식 흑백 TV 생산
- 한샘 설립

한국 사회사

- 와우아파트 붕괴
- 새마을운동 시작
- 서울 인구 500만 돌파
- 경부고속도로 완공
- 남산1호터널 개통
-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1961년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좁고 척박한 농토에 의존하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낙후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속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수출입국(輸出立國)’이란 구호를 내세웠다. 이후 1968년, 5억 달러라는 수출 실적을 내자 1970년까지 10억 달러 수출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갔다.

수출을 총괄하던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공업 제품을 개발, 수출하기 위해 좀 더 나은 외양의 공산품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이 시기에는 ‘디자인’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일부 패션 분야에서만 디자인과 디자이너라는 말이 사용될 뿐, 산업계 종사자들은 디자인을 미술 분야 이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1960년대 중반까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고 정부도 이를 지원해줄 기구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포장 산업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포장재는 주로 오래전부터 이어진 토기, 목상자, 목통, 죽제품, 면포대, 마대, 가마니, 새끼, 노끈 등이었고, 포장

의 기능은 단순히 상품의 보호와 제품 이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일차적 기능에만 머물러 ‘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를 거두는 시기에 수출 진흥 기관들, 즉 **한국포장기술협회(1966)**와 서울대 부설 **(사)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1966)**를 차례로 설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말까지도 수출 상품에 대한 클레임 가운데 포장 문제에서 기인한 사고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수출 상품의 포장 개선을 지원할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포장 진흥 정책에 관해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인 1969년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를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개칭하여 수출 상품의 디자인 연구 개발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같은 시기에 **한국무역협회**와 각 수출 조합을 중심으로 한 ‘**한국수출품포장센터**’를 발족시켜 포장에 관한 연구, 개발과 지원 업무를 시행하게 했다.

1969년 10월, 상공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낙선은 디자인 분야에서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상공부를 중심으로 디자인·포장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논의한바, 디자인 포장 연구 개발 및 진흥 업무를 추진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제4차 수출진흥학대회의에서 통합 방침을 보고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한국포장기술협회**와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해산해 **한국수출품포장센터**에 흡수·합병하게 되었다. 마침내 1970년 5월 19일,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의 전신인 재단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KDPC)**’가 한국 디자인 진흥을 위한 중추 기관으로 발족한 것이다. 설립 이념은 “디자인의 향상과 포장 기술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우수한 수출품 포장기재의 공급 및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한국 디자인 진흥의 본격적인 서막이 오른 것이다.